

전기차 구입시 최대 1900만원·수소차 최대 3750만원 지원

9천만원 이상 고가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안해

6천만원 이하 전액 지급...6천만~9천만 50%만

초소형화물차 6백만원...전기택시 2백만원 추가

저공해차 보급목표 달성률 따라 추가금액 지급

정부는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6000만 이상 9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만 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화를 위한 조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본 20만원에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목표 달성률이 높은 기업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자부담금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30만원(대형·기타형)이 책정됐다.

전기·수소차 13.6만대 보급...9000만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미지급

정부는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수소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6000만~9000만원 차량은 50%만 지급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전기차 12만여대, 수소차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책’을 내놨다.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해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185대 등 13만6185대를 보급한다. 전기차는 전년 대비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 1000대, 전기화물차 2만5000대, 수소버스 180대도 올해 보급한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필요한 지원 예산은 전기차 1조230억원, 수소차 3655억원

으로 책정됐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에 위한 보조금도 신설해 국비와 지방비를 2억원씩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900만원, 수소 승용차는 최대 3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은 기존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화물 전체 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전기 택시 대상으로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액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차고지와 교대지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이 쉽도록 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동절기에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올해 9000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

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6000만 이상 9000만원 미만 차량에는 50%만 지급한다. 전기차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대중화를 위한 조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본 20만원에 목표 달성률에 따라 10~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목표 달성률이 높은 기업은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에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자부담금은 대형 전기버스는 1억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130만원(대형·기타형)이 책정됐다.

또 전기 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해 수리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수리 보험 제출을 의무화한다. 수리 의무기간의 경우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는 1년 또는 1만km, 배터리는 2년 또는 2만km로 정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단가 감소...적자 수소충전소 최소 7000만원 지원

정부는 전기·수소차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씩 지원한다.

단, 전기차 충전기 보조단가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해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충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수행 기관 등록 기준도 강화했다. 최소 인력은 기존 3명에서 11명으로 상향하고, 홈페이지 개설 등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적자를 기록하는 수소충전소에는 연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수소충전소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 손익분기점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차액 보조로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되,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2021년 전기·수소차 보급정책과 보조금 지침을 한국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해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상황 및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봉우기자



리릿, 'KF94 스타일 마스크' 출시

200명에 경품 증정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 리릿(Li.lit)은 2월2일 까지 '리릿 KF94 스타일 마스크'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 기간 온라인 판매처 어느 곳에서든 리릿 상품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프리미엄 메모리폼 매트리스(퀸), 리릿 스타일 컬러 마스크, 숏클렌저, 구강청결제 등 경품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2월17일 리릿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새로 출시하는 리릿 KF94 스타일 황사방역용 마스크는 그레이·네이비·레드와인·베이지 등 4가지 색상이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건강과 패션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리릿은 신제품 외에도 다음달 2일까지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상품은 ▲KF94 황사마스크 ▲간편집밥 밀키트 ▲미니크로와상 ▲아기물티슈 ▲천연펄프 화장지 ▲깨끗한 은하수 생수 ▲톡톡 스파클링 탄산수 ▲왕왕 칫솔 ▲자연유래성분 액체세제 ▲휴일 무선 가습기 ▲치솔살균기 ▲인바디체중계 등이다.

인기 세트, 더 싸게 배달·픽업...교촌치킨x위메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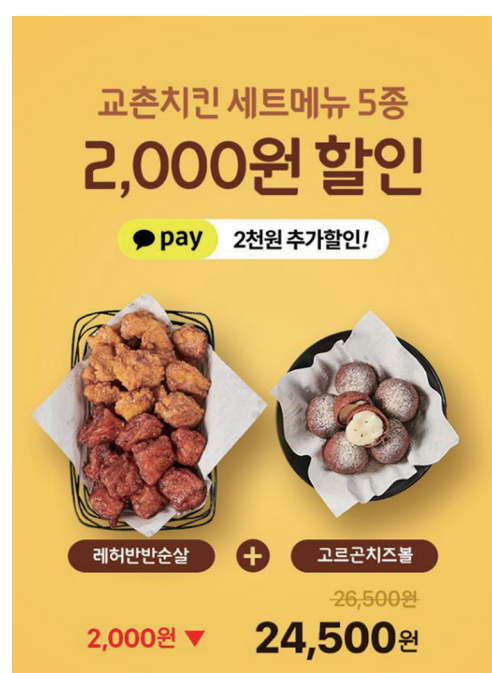
27일까지 바로 결제...무제한 2천원 ↓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27일까지 외식 배달·픽업 애플리케이션 '위메프오'에서 '세트 메뉴 5종'에 대해 2000원 주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촌 리얼 후라이드+ 교촌 레드 순살(S)’ ‘교촌 리얼 후라이드+교촌 레드 순살(R)’ ‘교촌 시그니처 순살 세트+고르곤 치즈 볼’ ‘교촌 반반 순살+고르곤 치즈 볼’ ‘교촌 레어 반반 순살+고르곤 치즈 볼’ 등이다.

‘교촌 리얼 후라이드’가 눈에 띈다. 후라이드 치킨 시장을 공략하고자 교촌이 내놓은 신제품이다. ‘겉바속촉’(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정석을 보여준다. 퀴노아, 아미란스, 오트밀 등 ‘슈퍼 푸드’가 함유된 튀김옷으로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했다. 은은하게 퍼지는 고소한 땅콩 향과 바질 마늘 향으로 차별화된 후라이드 맛을 낸다.

위메프오에서 ‘바로 결제’로 이들 제품을 주문하면



문하면 횡수에 상관 없이 할인이 적용된다. 최이슬기자

올해 광주·전남 수출 '반등 전망'...변수는 코로나 팬데믹

올해 수출, 광주는 자동차 선전...전남은 원유 수요 증가로 개선 기대

올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해 이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및 2021년 수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광주는 하반기부터, 전남은 12월부터 증가해 반등에 성공했다.

2020년 상반기 광주 수출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동반 감소(-12.4%)했다.

하지만 점진적인 경기 회복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른 반도체·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은 '18.6%' 증가했다.

전남은 상반기에 수출이 크게 감소(-21.0%) 했지만 하반기부터는 감소폭

(-12.9%)이 줄어들었고, 12월에는 수출이 4.7% 늘어나 첫 증가세를 기록했다.

2021년 광주·전남 무역환경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저지효과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실적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수출국의 산업 구조와 정책 대응, 방역 능력, 백신·치료제 개발 등도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광주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선전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SUV, 친환경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는 5G 모바일 수요 증가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가 기대된다.

하지만 냉장고는 세계 가진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고전이 예상된다.

전남은 국제유가의 안전한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로 수출 개

선이 기대된다. 합성수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일회용 포장재, 가전, 위생용품 등의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제품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 여기에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지속함에 따라 국제유가도 회복될 전망이다.

철강은 자동차 등 수요산업 경기 회복과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유지로 큰 변동 없이 현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경우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환경·노동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U+ 알뜰폰 파트너스, 갤럭시S21 자급제폰 요금제 특별 할인

기간한정 특별할인 요금제 5종... 5G 데이터 9GB 최저 2만2200원 등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1 공식 출시에 앞서 U+알뜰폰 파트너스와 함께 '꿀조합'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꿀조합'은 자급제폰을 구입한 후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간한정 특별할인 요금제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이번 갤럭시 S21 꿀조합 프로모션은 지난해 10월 실시했던 아이폰(iPhone)12 프로모션에 이은 2탄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프로모션 론칭 후 아이폰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U+알뜰폰에 가입하는 고객이 약 4배 이상 성장하는 등 큰 성과를 얻어 2탄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갤럭시 S21 자급제폰 구매 후 U+알뜰폰 파트너스 11개사를 통해 요금제를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할인 요금제 5종을 제공한다.

요금제는 ▲최저 2만2000원(VAT 포함)에 데이터 9GB(소진 후 1Mbps) ▲최저 3만5750원에 180GB(소진 후 5Mbps) 등 5G 2종과 ▲최저 2만7700원에 일5GB(소진 후 5Mbps) ▲

최저 2만2000원에 11GB(소진 후 3Mbps) ▲최저 1만2100원에 15GB(소진 후 3Mbps) 등 LTE 3종이다.

참여사업자별 요금제 가격 및 프로모션 내용은 상이하다.

또 U+알뜰폰 파트너스 전용혜택으로 갤럭시 S21 자급제폰을 KB국민카드(체크카드 제외)로 구매 시 10% 캐시백 및 6개월 무이자 혜택을 별도 제공한다.

갤럭시 S21 울트라 기준 최대 15만900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은품도 마련했다. 개통을 완료한 고객 전원 대상 유튜브 프리미엄 3개월 이용권과 배달의민족 2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추첨을 통해 갤럭시 S21(1명), 갤럭시 워치3(2명), 갤럭시 버즈 라이브(5명), 삼성 정품어댑터(50명)를 증정한다.

개별 사업자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U+알뜰폰 모바일'은 요금제 가입 후 자급제 단말 분실/파손보험(5900원)을 신청하는 고객에 한해 6개월 지원하고, '헬로모바일'은 추첨을 통해 매



주 1명에 금 3돈(100만원 상당) 증정, '큰사람'은 가입 고객 전원 대상 요금제에 따라 최대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U+알뜰폰 파트너스인 U+알뜰모바일, 서경방송, 스타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에스원, 여유티레콤, 인스코비, 유니콤, 큰사람, 헬로모바일이 참여한다.

강진욱 LG유플러스 MVNO사업담당은 “지난 해 진행된 자급제 아이폰 꿀조합 프로모션을 통해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성과를 냈다”며 “이번 갤럭시 S21 출시를 맞아 U+알뜰폰 파트너스 사업자와 보다 풍성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공동 프로모션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